

민간·군 공항 이전 갈등 감정보다 이성적 협의를

뉴스 초점

광주시·전남도 연일 엇박자 상생 기반 합리적 대안 모색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통합 논의를 위한 만남, 사·도 상생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등을 앞두고 광주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 광주시와 전남도의 엇박자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다.

‘광주시의 광주 민간공항 이전 및 전남도의 군공항 이전 협조’를 명시한 지난 2018년 협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시도민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상호 감정적인 대응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협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는 25일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이 ‘광주시의회’ 답변에서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과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은 2018년 협약서에 없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원들은 전남지역 후보자들의 반대로 군 공항 이전의 진척이 없어도 불구하고 전남도와 맺은 협약대로 2021년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해 전남도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광주시는 민선 7기 출범 당시 2018년 6월 22일 광주혁신위원회에서 “광주 민간공항은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조건없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이전시기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8월 20일 민선7기 첫 개최된 광주전남상생위원회는 광주 민간공항·무안국제공항 통합을 협력과제로 선정해 적극 실천해 나갈 것에 합의했으며, 광주광역시·전남도·무안군은 무안국제공항을 국토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계획인 ‘제4·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20)’의 ‘지자체 간 합의가 되면 이전한다’는 조건이 충족돼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를 토대로 항공정책 최상위계획인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 등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올 1월 3일 확정 고시했다.

전남도는 군 공항 이전 문제의 합리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광주·전남 정책TF’를 구성,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범정부적 인센티브안 마련을 위해 광주시와 의견 등을 협의하고 있다. 10월말에는 전남도의 제안으로 광주시와 함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방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항 관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안국제공항을 건설할 당시의 조건대로 광주 민간공항을 조속히 이전하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군공항 이전에만 전념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장·전남지사 주중 회동 조율

통합 관련 합의문 의견 차 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달 내 회동을 갖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막판 합의문을 조율중이다. 합의문에는 통합과 관련 지금까지 김 지사가 주장해온 단계적 통합 방식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양측의 의견 차가 커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이달 내에 회동하기로 하

고 합의문 내용을 상호 협의중이다. 물밑 접촉 과정에서 지난 주말에는 합의문을 작성해 27일께 만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면서 회동 날짜도 변동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시나 전남도의 극적인 양보가 있을 경우 27일 회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27일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오전에 광주시장에서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와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날이다.

▶2면으로 계속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글로벌 삼성’ 남기고… 재계 큰 별 지다



‘그린 자전거 축제’ 가을 속으로… 광주일보가 주최한 2020 그린 자전거 축제가 25일 오전 광주 서구 영산강자전거길내센터 앞 광장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라이더들이 영산강변으로 이어진 주로를 따라 달리고 있다. ▶ 관련기사 9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삼성 이견희 회장 별세

향년 78세…가족장 치러

한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이견희(사진)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시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78세.

〈관련기사 2면·14면〉

이날 삼성은 이 회장의 별세 소식을 알리면서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한다”고 전했다.

부인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부회장 등 가족들은 전남 이견희 회장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으며 함께 고인의 인종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10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으며,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까지 받고 소생해 치료를 이어왔다. 이후 자가호흡을 하며 재활치료를 받아 왔으나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6년 5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의 유족으로는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사위 김재열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이 있다.



고인은 선친인 호암(湖巖) 이병철 삼성 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삼성그룹 2대 회장에 올라 삼성그룹을 이끌었다.

한편 빈소는 고인이 입원해있던 삼성서울병원 지하 2층 17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28일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낙연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첫 광주 방문

“5·18진상규명법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다. 이 대표는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5·18 관련 단체, 종교·노동 단체,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들과 잇따라 만나 관련 현안 등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표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5·18 명예훼손 처벌법과 진상규명에 관한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관련 두 가지 대표적인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5월 단계 관계자 등을 만나 지금까지 진행된 5·18 관련 법안들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5월 단계 대표들은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와 국립 5·18 민주묘지 확장 문제 등을 건의했고, 이 대표는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광주시청을 방문해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적극 돕기로 약속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August 2020

Forbes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IT, 벤처, 스타트업, 1인기업 등 기업사옥으로 지식산업센터 인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융자 가능
-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0㎡ ※ 용도: 지식산업센터(공정)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원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지산·창고 21실 | 운동 및 문화집회시설 3개소

모델하우스 오픈중
T.372-6666
모델하우스: 광주 서구 마죽동 165-14